

■ '99. 3/4분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 실태조사 실시

협회는 '99. 3/4분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 실태조사를 지난 10월 13일 ~11월 6일까지 정보통신 관련 9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정보통신산업(서비스, 기기,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 관련 산업(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정보통신공사업), 타산업 정보화 인력(한국표준산업 분류의 15개 업종) 등

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소재지), 조직형태, 상장유무, 설립연월, 작성자(성명, 연락처 등)이고 ▲조사한 고용현황은 총 종사자수, 총 입사자수, 총 퇴사자수, 정보통신산업 인력, 정보화 인력 등이다.

이번 조사는 ▲전산업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및 정보화

인력에 대한 고용현황을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과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신뢰성 있는 고용통계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그 조사목적이 있다.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팀 실리콘밸리 견학 실시



협회는 제1회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팀 12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부와 협회 관계자, 유리벤처장학회 조해성 이사 등이 동행한 가운데 지난 달 10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 견학을 실시했다.

경진대회 수상에 대한 격려의 뜻과 함께 벤처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 벤처기업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번

행사는 산호세의 ipopcorn사 방문을 비롯해 라스베이거스의 컴덱스 행사를 참관하는 등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견학 지역별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실리콘밸리에서는 Value Inn을 방문해 InterTech Media, Inc.사의 김웅배 사장과 의 대화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과정 및 현황,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기 위한 구비요건,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인도, 중국 및 이스라엘과 한국의 문화 비교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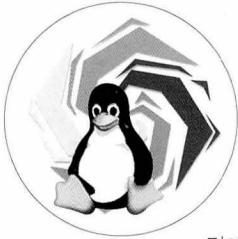
ipopcorn사 방문에서는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Entertainment Portal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고, 사업기획 및 시스템 구축은 실리콘밸리에서 하며, 콘텐츠 제작은 한국, 중국, 일본 현지에서 제작 및 운영할 예정이라는 등 ipopcorn사의 사업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Wilson Sansini사, IBI사, KSI사, 삼성전자 등을 방문, 실리콘밸리 지역의 사업현황과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방문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패커드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가한 '99 COMDEX FALL 행사를 참관하였다.



리눅스협의회 '연합 워크샵' 개최



협회 산하 리눅스협의회는 지난달 5~6일 2일간에 걸쳐 정보

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진대제 협의회장 등 협의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리눅스 보급지원센터 구성 사업 ▲리눅스 장비를 활용한 교육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사업 ▲사업체 및 관공서에서의 리눅스 사용환경 실태 및 사무환경 적용 실재 조사 ▲리

눅스 시스템 용량 산정 및 성능 평가 등 올해의 연구과제 결정 및 수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리눅스 창업지원센터 사업 등 내년도 사업도 계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리눅스협의회는 리눅스 우수 S/W 발굴을 위해 제1회 「리눅스 우수 S/W 공모전」을 개최키로 하고 지난 4일까지 참가자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수상자는 개별통보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이달 20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제3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한국 기업의 e-Business 전략 모색'



협회는 지난달 25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우리 협회 정장호 회장과 손

윙기 부회장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기업

의 e-Business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 특별강사로 초빙된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강연을 통해 "현재 모든 기업운영의 e-Business화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e-Business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IBM, GE 등 세계적 기업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체계를 e-Business 체제로 전환한 뒤 큰 폭의 흑자를 내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e-Business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3회 정보통신포럼은 이처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정확히 읽고 국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공유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e-Business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등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IEEE1394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협회 산하 IEEE1394 분과위원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주관으로 IEEE1394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를 정장호 협회장과 손웅기 부회장,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주요인물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IEEE1394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서 IEEE1394 칩셋 설계 기

술, 그리고 각 기업의 응용 개발 사례 발표와 함께 제품과 기기의 전시 행사도 가졌다.

IEEE1394는 세계적으로 전자, 전기, 전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위원회인 IEEE가 95년에 제정한 차세대 고속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표준기술로 PC와 주변기기(마우스, 프린터, 스캐너 등) 간의 접속만 가능하던 기존의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MPC, HDTV,

DVD, DVC, 셋톱박스 등 차세대 멀티미디어기기 간의 음성, 영상, 데이터 송수신을 400Mbps~1Gbps급 이상의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IEEE1394는 현재 전세계 업체에서 제작되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중요한 기본기능으로 채택되어 향후 3~4년 내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대체할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다.

또한 IEEE1394는 TI,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NEC, 애플, 컴팩, 필립스, 아담텍, 소니 등 150여 개의 세계 각국 회원국과 18개 BOD(Board of Director) 회원사 그리고 30여만명의 관련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의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협의체인 1394TA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차세대 멀티미디어 제품의 표준화와 향후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술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